

# 短歌 定型의 發生期 再考

朴奎洪

##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1. 高麗朝人の 作品

2. 〈何如歌〉・〈丹心歌〉

3. “自麗季至國朝…”

4. 朝鮮初의 雅頌

5. 丁克仁의 “短歌”

6. 退溪・藏六堂・豐巖의 短歌

### III. 結 論

## I. 序 論

‘時調의 發生期’에 관한 논의는 적지 않았다. 다양한 견해가 開陳되었으나 요즘은 고려 말엽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거의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의도 튼튼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本稿는 現存의 자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되었다. 많은 문제점을 제쳐두고 이 논제를 취한 것은 우리의 詩歌文學史를 거론할 때 이것은 언제나 직면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저간의 先行研究를 일일이 거론하는 것을 피하기로 하고, 단지 이제까지 我田引水格으로 인용했던 발생기에 관한 자료를 재정화될 수 있는 문제 중심의 6개 항목으로 묶은 다음 관계되는 자료나 논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 6개 항목이란 (1) 歌集에 기록되어 있는 麗朝人의 이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2) 〈何如歌〉와 〈丹心歌〉의 신빙성은, (3) “自麗季至國朝”라는 歌集의 기록은 인용할 수 있는가, (4) 鮮初의 다른 종류의 作品(특히 雅頌)과 상호관련의 기미가 있는가, (5) 實錄에 언급된 丁克仁의 “短歌”를 어떻게 해

1) 근래 金炳國님은 「시조의 발생 시기」(『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pp. 277~285)에서 기존 연구의 흐름에 관하여 적절히 설명한 바 있다.

석할 것인가, (6) 신빙성이 큰 退溪·鰲巖의 작품과 그 序·跋, 그리고 李 鼐의 六歌에서 무엇을 類推할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단 한가지 前提할 것은 본고에서 발생기를 논의하는 그 대상은 오늘날 주로 短型時調로 지칭하고 있는 3章6句(많은 異論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의 詩形이며, 그것을 短歌로 호칭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sup>2)</sup>

이런 문헌 중심의 연구가 발생기를 파악하는 방법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라 생각된다. 신용할 만한 결론을 얻는다면 古詩歌 研究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 II. 本 論

### I. 高麗朝人의 作品

1972년도까지 발굴된 歌集 혹은 文集 등에 수록된 소위 時調를 집대성한 『校本 歷代時調全書』<sup>3)</sup>(이하 『時全』으로表記)를 보면 여러 歌集에 고구려인 乙巴素, 백제인 成忠, 신라인 薛聰이 作者로表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論證 없이도 이表記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기록의 신빙성이 그렇게 희박하다면 다른 作家表示 역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歌集들을 深察한 沈載完님은 歌集의 作者를 밝히는 태도에 대한 不信感을 다음과 같이 表한 바 있다.

……記名作家라 해도 그대로 信憑키 어려운 混亂相이 많음을 볼 수 있어 그 規定은 어렵고 問題點이 많다. 그 中에서도 同一作品에 있어 二名以上の 作家名이 混記되고 있는 것이 있음은 이러한 例라 하겠으니……<sup>4)</sup>

作家를 표기하고 있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麗朝人들의 이름, 특히 末期의 麗人들은 대체로 인정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물론 趙潤濟, 鄭

2) 拙稿, 「短歌·長歌·時調 小攷」(『語文學』 제 47 집, 한국어문학회刊, 1986)과 「時調란 名稱에 대한 再考察」(『울산어문논집』 제 4 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刊, 1988) 참조 바람.

3) 沈載完, 『校本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4) \_\_\_\_\_, 『時調의 文獻的 研究』, 世宗文化社, 1972, p. 160. 강전섭님도 「古詩調集의 信憑性 問題」(『韓國學報』第 33 輯, 一志社, 1983)를 비롯한 일련의 論文에서 古歌集의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炳炆, 李泰極 등의 先學들이 주장한 麗末完成說이 호응을 얻은 탓도 있지만, 그 논증의 확실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그냥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로 보여진다.

……또 高麗의 崔冲이나 郭輿의 作品까지도 疑問에 두는 것이 도리어 當然 할듯 하다. 만약 安全을 期한다면 高麗末葉에 屬하는 禹倬 以下の 作品으로부터 取扱하는 것이 가장 無難할듯 한데, 時調의 그 發生의 時期가 언제였든 또 그 作品이 如何하든, 時調文學이 成立하였다는 것은 高麗文學의 國文學史上 一大 貢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5)</sup>(방점 필자)

이처럼 歌集에 記載되어 있는 麗末 人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論據 없이도 學界에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麗末人들만 해도 歌集編纂 時期와는 時間的 相距가 적어도 3·4백년은 있으며, 이런 歌集들 외에 그들이 短歌를 남겼다는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신빙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文獻에 적힌 3·4백년 전의 일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歌集에 表記된 麗朝人들을 보자. 朝鮮朝에 와서 벼슬살이를 한 鄭道傳이나 成石璘, 趙浚 등을 빼면 麗朝의 作者로는 姜邯贊, 崔冲, 郭輿, 鄭知常, 李奎報, 禹倬, 李兆年, 成汝完, 崔瑩, 李穡, 李芝蘭, 鄭夢周母, 鄭夢周, 李存岳, 古再 등이 있다.

그런데 먼저 鄭知常이나 李奎報의 作品이란 것을 보면 그들의 七言漢詩를 短歌化한 것에 불과하다. 兩人이 직접 自身の 漢詩를 그렇게 短歌形으로 고쳐 歌唱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sup>6)</sup> 그리고 다른 麗朝人의 작품이란 것도 상황이 이보다 나을 것 없다. 특히 圃隱의 母堂作으로 전해지고 있는 作品의 경우, 時間上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논의된 바 있다. 또, 人口에 膾炙되는 “梨花에 月白하고……”의 작자를 李兆年으로 논의한 論文<sup>7)</sup>도 있으나 ‘李兆年’ 혹은 ‘尹淮’로 된 歌集의 표기만을 문제삼았을 뿐, 歌集의 신빙성 문제라든가 李兆年(1269~1343)이 부른 노래가 어떻게 4백년 후에 나온 歌集에 온전히 본래의 형태대로 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5)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4, p. 96.

6) 李奎報의 漢詩는 朝鮮 孝宗代人 金堉이 短歌化했음이 논의된 바 있다. 李秉岐의 「時調의 發生과 歌曲과의 區分」(『震檀學報』 第一卷, 1934) 참조.

7) 金光淳, 「李兆年の 時調에 對하여」(『時調論』, 趙奎萬·朴喆熙共編, 潮閣, 1978), pp. 179~202.

所傳의 작품을 토대로 麗末 短歌의 存在를 확인코자 하는 노력도 없지는 않았다. 李泰極님은 牧隱의 “白雲이 잦아진 골에”나 李存禧의 “구름이 無心탄 말이”, 圃隱의 “이 몸이 죽어 죽어” 같은 노래들이 當時의 生活相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에 그들의 所作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sup>8)</sup> 그러나 필자가 詩의 話者와 作者의 分離 問題를 논의한 바 있거니와,<sup>9)</sup> 오래 전부터도 같은 對象에 대해 李泰極님과 다른 視角이 있어 왔다. 너무나도 공교히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인데, 다음은 그런 의구심의 한 예이다.

더구나 그 노래란 것들이, 그 지은이라는 이들의 역사적 사건을 端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면 것일수록(가령 高麗 遺臣들, 李太宗, 鄭圃隱, 南怡, 死六臣, 李浣, 洪瑞鳳, 朴泰輔 등등), 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그 爲人과 人品과에 심히 가까운 模樣으로서 있는 노래면 그 노래일수록(가령 金宗瑞, 黃喜, 鄭太和, 女流들 등등) 필자는 안심할 수 없는 불안을 금하지 못했었으며,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바이다.<sup>10)</sup>

同一對象을 두고 表明된 이런 相反된 見解에 명확한 解答을 줄 證據資料는 없다. 또 乙巳素, 成忠, 薛聰, 崔冲, 郭輿 등과 禹倬 이후의 고려인들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뿐이지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별다른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인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도 많은 이 歌集의 作者表記를 취할 때는 보다 신중한 필요가 있다. 즉, 不確實한 歌集의 作者表記는 綜合的 檢討의 參考對象 정도에 두는 것이 우선 안전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學者들이 短歌가 麗末에는 完成되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何如歌〉와 〈丹心歌〉의 存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들의 作者의 확실성 여부는 短歌 存在의 時期 問題의 主要한 關鍵이 된다.

## 2. 〈何如歌〉·〈丹心歌〉

〈何如歌〉와 〈丹心歌〉가 李芳遠과 鄭夢周의 所作이라는 것은 별로 의심

8) 李泰極, 『時調의 史的 研究』, 二友出版社, 1981, pp. 86~87.

9) 拙稿, 「古詩歌의 ‘詩의 話者’ 考察」(石霞權寧徹 博士 華甲紀念 國文學研究論叢 曉星女大 出版部, 1988).

10) 李能雨, 『古詩歌論攷』, 淑明女大 出版部, 1983, pp. 23~24.

을 받아 오지 않았다. 다음은 이런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예이다.

高麗末의 李芳遠(太宗)의 寄託諷諭의 時調(何如歌)나 鄭夢周의 丹心忠節의 時調(丹心歌)가 後人의 僞作이 아닌 古本들의 作이 分明하고 보편……<sup>11)</sup>(방점 필자)

물론 다음과 같이 그 所作說의 타당성을 論證하려는 노력도 적지 않았다.

海東樂府나 圃隱集에 漢譯되어 있는 何如歌와 丹心歌는 六句三章形式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어 우리 말로 불려졌던 痕迹을 넉넉히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특히 단가의 고려조 발생설을 주창하는 학자들의 이 兩作品에 대한 신뢰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들 所作說을 믿어 온 데 반하여, 앞서 이능우님의 경우처럼 여기에 대한 일련의 의문이 계속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그런 예들이다.

(가) 如上한 「何如歌」의 民間傳承(Folklore)의인 傳承經緯를 考慮에 넣을 때엔 그 作者로 所傳되고 있는 「太宗御製」云云은 傳說의 固定化(歷史化)된 表象이나 아닌가 하는 假說은 더 굳세게 머리를 들게 될 것이 아닐가……(중략)…… 如何問 「丹心歌·何如歌傳說」이 流布되기 以前에 刊行한 「圃隱集」「圃隱詩稿」에 「丹心歌」가 圃隱의 作으로 確固하게 記錄되어 있지 않는 限 「丹心歌」의 作者를 「圃隱」으로 認定치 않으려는 志向은 永遠히 存續될 素地를 남기게 될 것으로 나는 본다.<sup>13)</sup>

(나) 결국 정 몽주의 노래도 애초에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알 수 없으나 ㉠에서 보여진 시조 모습의 것은 입으로 전해 오다가 뒷날 언제쯤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sup>14)</sup>(㉠은 〈丹心歌〉; 筆者註)

(다) 「丹心歌」의 鄭圃隱製作說은 壬亂後의 記錄인 沈光世(1577~1624)의

11) 徐元燮, 『時調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79, p. 45.

12) 李泰極, 前掲書, p. 86.

13) 池憲英, 「短歌定型의 形成」(『湖西文學』 제 4 집, 湖西文學會, 1959), p. 137.

14) 김수업, 「시조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時調論』, 趙奎高·朴喆熙 共編, 一潮閣, 1978), p. 9.

「海東樂府」에서 비로소 派生되어 敷衍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중략)……  
 「高麗史」·「高麗史節要」등의 高麗末年의 史料인 正史記錄들을 엄밀히 批判하여 검토하여 볼 때에, 「丹心歌」와 「何如歌」는 결코 鄭夢周(1337~1392)와 李芳遠(1367~1422)의 和作으로 볼 수 없다고 筆者는 판단……。<sup>15)</sup>

이능우님과 이들 세 학자들은 모두 短歌의 朝鮮朝 成立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何如可〉와 〈丹心歌〉에 대한 의구심에서 자연스럽게 빚어질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김수업님은 現傳의 〈何如歌〉와 〈丹心歌〉는 본래 다른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형되어 단가형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강전섭님은 애초에 어떤 형태이든 兩作品이 그 兩人에 의해 酬唱된 사실은 없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김수업님이 달리 있었을 어떤 형태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에 그친 반면, 강전섭님은 관계되는 여러 자료를 동원하여 論證을 시도하였다. 이 논의는 크게 주목된다. 만약 그 논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단가의 고려조 발생설은 크게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전섭님은 兩作品의 관계 문헌으로 沈光世(1557~1624)의 「海東樂府」(1617)가 最古로 꼽히는 漢文文獻 10種과 「梁琴新譜」(1612)의 것을 비롯한 〈丹心歌〉 46種과 〈何如歌〉 29種을 거론하면서, “壬亂 이전의 문헌에서는 圃隱·太宗製作說의 根據를 전혀 찾지 못했다”<sup>16)</sup>고 밝히고 있다. 반면 麗末의 實況을 기록한 「高麗史」나 「高麗史節要」로 봐서는 李成桂 혹은 李芳遠이 圃隱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設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어서 兩作品에 관한 古文獻의 기록은 단지 圃隱의 忠誠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꾸며진 後人의 作者附會心理에서 돌아난 閑談逸話라는 것이다.

李芳遠이 圃隱을 殺害하기까지의 經過는 「龍飛御天歌」(1445)의 注(第十二章)에도 記錄되어 있는데,<sup>17)</sup> 여기에서도 역시 「海東樂府」 등에서 언급되어 있는 設宴의 가능성은 찾아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15) 姜銓燮, 『韓國詩歌文學研究』, 大旺社, 1986, p. 36.

16) ———, 前揭書, p. 30.

17) ……太宗獨入, 請殺夢周. 太祖不聽曰. 死生有命, 但當順受而已. 太宗固請數四. 太祖終不聽. ……(중략)……太宗即還 太祖邸, 謂和, 恭靖大王, 及濟, 曰. 父公不聽吾言, 然夢周不可不殺. 我當任其咎. ……(중략)……則夢周到門矣. 以仲良洩其謀於夢周, 夢周知之, 欲觀變, 故託以問疾而來也. 太祖待夢周如初. 和白太宗曰. 誅夢周此其時矣. 復曰. 公怒可畏, 奈何. 太宗曰. 機不可失. 公之怒, 吾當陳大義以解之. ……(「龍飛御天歌」第十二章).

그러나 兩作品에 대한 正史의 記錄이란 것이 易姓革命의 主人公이었던 太祖나 太宗에게 조금도 이로우게 없는 내용이고, 그들이 제거한 圃隱을 돋보이게 하는 내용이고 보면 纂者들이 일부러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設宴하여 의중을 떠 보고 거기에 대꾸했다는 사실이 史錄에 꼭 넣어야 할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高麗史」나 「高麗史節要」, 「龍飛御天歌」 등의 文脈을 볼 때, 設宴, 酬唱의 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그런 사건이 없었을 가능성보다 더 크지는 않다. 李成桂가 落馬한 후의 鄭夢周의 태도에서 殺意를 굳힌 李芳遠이 그런 宴席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麗末, 鮮初에 가장 가까운 正史의 기록으로 和答歌를 授受했을 가능성이나 단가의 作品形態가 있었을 가능성을 類推하기는 어렵다. 또 이런 기록들을 뒷전에 두고 差錯마저 보이는 2·3 백년 뒤의 책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따라서 「海東樂府」 이하의 漢文文獻이나 「梁琴新譜」 이하의 國文文獻들에서 보이는 〈何如歌〉·〈丹心歌〉와 太宗·圃隱 所作說은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충하기 전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 3. “自麗季至國朝…”

歌集의 序·跋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단가 발생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가) 自麗季至國朝以來 名公碩士及 閻井閻秀之作 一一蒐輯……(중략)……名之曰青丘永言……(중략)……南坡老圃識(「青丘永言」珍本)(방점 필자)

(나) 自麗季至國朝以來 列聖御製及 名公碩士歌者漁者 吏胥閭巷豪遊名妓與無名氏之作及 自製長短歌一百四十九章 一一蒐輯……(중략)……名之曰海東歌謠……(중략)……完山後人 七四翁 老歌齋金壽長書(「海東歌謠」周氏本)(방점 필자)

즉, “고려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 단가의 시형이 고려조부터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학자들 간의 엇갈린 견해를 볼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예이다.

(다) 青丘永言 序에도 「自麗季至國朝以來列聖御製及名公碩士……」으로 적혀 있고 珍本에는 牧隱 圃隱 東浦의 作品이 실려 있고 大學本 青丘永言에는 禹倬 崔冲 李兆年 元天錫 李存吾 李穡 郭興 李芝蘭 등 10名の 作品이 보인다는 點.<sup>13)</sup>

(라) 김 득신이든지 정 래교든지 신분이 뚜렷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졌던 사대부들의 머리글에는 고려 시대의 노래를 모았다는 말이 비치지도 않았는데 김 천택이 스스로 쓴 발문에는 “고려 시대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이름 높은 분들과 큰 선비들 그리고 마을 백성과 여인네들의 노래를 모두 모았다”고 해 놓은 것이다.……(중략)…… 김 천택을 위시한 김수장과 그 뒤의 노래책 엮은이들이 거의 평민들인데 그들이 노래를 모으고 그 노래의 지은이와 시대를 매기는 태도는 매우 미덥지 못한 것이다.<sup>19)</sup>

(라)에서 士大夫(김득신, 정래교)의 말은 신뢰할 수 있는 반면, 平民(金天澤, 金壽長)의 말은 미덥지 못하기에 “고려시대로부터……”라는 文句도 신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는 것 같다. 더구나 김득신 정래교 등이 역시 평민 가객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금 김수업님의 견해는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다)처럼 그 文句를 신빙해야 할 것인가?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 詩的 話者로서 그들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실제 작자로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보충 자료 없이 歌集의 기록을 신빙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도 확인한 바다.

우선 「靑丘永言」(洪氏本)의 경우를 보자. 「靑洪」에도 (가)와 불과 몇자가 틀리는 同一의 序文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作品 중에는 乙巴素, 薛聰, 成忠의 이름이 나란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註까지 달아 놓았다.

乙巴素(歌番8) 隱居鴨綠山中 東都晏留 薦之 拜相國 明政教 信賞罰 國治民安  
高句麗故國川王時人<sup>20)</sup>

薛聰(歌番9) 新羅神文王時人 字聰智博學能文 以方言 解九經義 訓導後生 以俚語製吏札 行官府<sup>21)</sup>

成忠(歌番10) 百濟義慈王時人 官佐平 王作望海亭 與官人謠酬 成忠極諫 王囚之 成忠不食死獄中<sup>22)</sup>

이처럼 序文의 내용과 노래에 붙은 註의 내용이 相衡되는 것으로 봐서

18) 李泰極, 前掲書, p. 86.

19) 김수업, 前掲書, p. 6.

20) 『時全』 2224 참조.

21) 『時全』 2411 참조.

22) 『時全』 1092 참조.

作者表記나 時代表記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靑丘永言(珍本)의 양상은 다소 다르다. 마치 序文의 “自麗季”의 문구를 의식이나 하듯이 ‘麗末’欄에 牧隱, 圃隱, 東浦 세 사람만을 소개하고 있다. 沈載完님도 여기에 대해 “麗末의 三作家만 다루고 그 以前의 作家를 다루지 않았음으로 미루어 보아 作家規定을 慎重히 다루었다는 編纂意圖를 엿보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sup>23)</sup>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도 역시 문제는 있다. 편찬자가 좀더 신중했다면 東浦 孟思誠(1360~1438)은 당연히 麗末이 아니라 鮮初의 인물로 다루어야 했을 것이다. 물론 東浦는 麗末과 鮮初에 걸쳐 산 人物이며, 「靑珍」의 註에서도 “孟思誠字誠之號東浦前朝魁科入 我朝官至左相致仕諱文貞至孝清簡性解音律嘗執一笛日弄三四聲”이라 밝히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실고 있는 “江湖에 봄이드니……”등 소위 〈江湖四時歌〉4수는 朝鮮初에 지어진 것 — 일단 東浦의 作으로 인정하고 — 으로 봐야 할텐데, ‘麗末’에 넣은 것은 잘 된 분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丹心歌〉는 실려 있는데 〈何如歌〉는 왜 없는지, 또 他歌集에도 表記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高麗의 遺臣 吉再나 元天錫의 作品은 왜 ‘無名氏’欄에 들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靑丘永言」(1728)이 現傳 最古의 歌集일지라도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3·4백년 전, 즉 “麗季”에 관한 것을 별다른 보충 자료 없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잠깐 살펴 본 것처럼不信을 야기하는 요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 4. 朝鮮初의 雅頌<sup>24)</sup>

조선 초기, 開國功臣 혹은 그 이하 勳舊勢力들은 易姓革命의 當爲性을 고취하기 위하여 天命論을 내세우거나 새 王朝 創建主의 王者的 功業을 찬양하는 데 注力했다. 雅頌의 창작도 그런 노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작품들이 이 雅頌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만약 〈何如歌〉나 〈丹心歌〉 같은 작품들이 麗末에 이미 나올 수 있었다면, 鮮初의 雅頌과 결코 無關한 관계에 있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鮮初의 雅頌을 통하여 當時 短歌 存在의 기미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23)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p. 14.

24) 본고에서는 雅頌이란 “조선 초기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館閣文學 중 체제 및 문물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집권 체제의 이념에 기반을 둔 경계지사를 제시하여 왕조 영속의 당위성을 형상화한 시문학 작품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

歌集을 통해 본 鮮初의 短歌 作者들은 成石礪(1338~1423), 趙浚(1346~1405), 孟思誠(1360~1438), 李稷(1362~1431), 黃喜(1363~1452), 卞季良(1369~1430), 崔德之(1384~1455), 權踰(1387~1445) 등 주로 堂上官 이상의 顯達한 人物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雅頌을 지어 바칠 수 있는 위치의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開國 一等功臣이었던 鄭道傳은 소위 景幾體歌 형식으로 〈文德曲〉·〈納氏曲〉·〈新都歌〉·〈靖東方曲〉 등 여러 朝會宴享雅頌을 지어 新王朝 혹은 新王家를 頌祝하였으며, 卞季良도 〈華山別曲〉·〈天眷東陲之曲〉·〈初筵獻壽之歌〉·〈賀皇恩曲〉·〈賀聖明〉(3장)·〈紫殿之曲〉(3장) 등 많은 雅頌을 지었다.

鄭道傳의 作으로 되어 있는 (12개 歌集中 「歌曲源流」(一石本)에는 俞應孚로 되어 있다.) 短歌를 한 번 살펴 보자.

仙人橋 나린 물이 紫霞洞에 흘러드러  
 半千年 王業이 물소리 쏜이로다  
 아희야 故國興亡을 물어 무슨하리오  
 (『靑洪』33, 『時全』1583)

當時의 狀況에 걸맞을 뿐 아니라 아주 세련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런 短歌의 作자들과 조선 초기의 雅頌 作가들이 동일의 부류라는 점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何如歌〉·〈丹心歌〉나 高麗 遺臣의 懷古歌, 그리고 위의 것과 같은 정제된 형태의 短歌가 麗末·鮮初에 있었다면 역시 그들이 지은 雅頌과 서로 영향을 授受했을 터인데 별다른 영향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王族이나 顯達한 官吏들이었던 그 作자들이 短歌에 관한 것은 一言半句도 史錄에 남기지 않았다. 〈何如歌〉가 이미 완숙한 형태의 작품이고 보면 太宗의 即位 前後期에도 다른 여러 작품이 있었을 법한데 남은 작품도, 다른 언급도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뒤를 이은 世宗은 즉위 초부터 民間에 전해지고 있는 民俗 歌謠의 수집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sup>25)</sup> 임금이었는데, 〈何如歌〉의 作자라고 하는 父王 太宗의 영향도, 그 자신의 작품도, 또 그에 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의혹은 더해만 간다.

이렇게 短歌에 대한 언급을 신빙성 있는 당시의 기록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은 단가의 品格이 낮아서일까? 金絳(1488~1534)나 柳希春(1533-

(조규익, 『조선초기 아송문학연구』, 太學社, p. 26)을 그대로 따른다.

25) 「世宗實錄」卷61 및 조규익님의 前掲書 pp. 60~80 참조.

~1577) 등이 단가를 中宗과 宣祖에게 각각 獻上했다는 기록<sup>26)</sup>을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또 王室作家 18名이 68首의 작품을 남겼다는 통계<sup>27)</sup>나 歌集에 ‘列聖御製’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부러 史錄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短歌의 享有가 품위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왜 當時의 기록에 短歌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보기 어려운가?

또 조선 초기 아송문학은 君臣의 이념적 결속 및 대중 세력의 목적으로 등장한 문학 형태라고 한다.<sup>28)</sup> 고려말에 이미 李芳遠과 鄭夢周가 잘 다듬어진 〈何如歌〉·〈丹心歌〉를 和唱하고, 고려의 遺臣들이 懷古歌를 읊을 정도라면 — 그 정도라면 익숙해 있는 단가로 대중 세력을 위한 작품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을 법하다. 더구나 松江이 短歌形式으로 〈訓民歌〉를 지어 百姓을 教化하려한 것 등 많은 訓民歌系의 단가가 있는 것으로 봐서 教化方法으로서의 단가 양식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훨씬 어려운 景幾體歌는 나타나도 短歌가 教化의 방법으로 사용된 자취는 鮮初에 발견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장의 논의만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鮮初의 雅頌과 관련지어 볼 때, 당시 短歌가 存在했다는 것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5. 丁克仁의 “短歌”

「成宗實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教誨子弟, 閒儒常事, 而褒之三品好爵, 此生餘年, 無塔上合, 謹作長歌六章, 短歌二章, 或與朋友歌詠, 或夜歌且舞, 頌禱之勤, 殆無虛日, 誓將身親詣闕謝恩然後, 無憾於九泉之下, 今者, 年至八十, 而出入無疾, 決意發程……(중략)……臣以樗櫟之材, 老於六世聖化之中, 忘其狂僭, 而并進俚歌二章, 僞豪一經天視, 老臣之願也, 謹昧死以上, 長歌一章, 短歌二章, 皆雜以俚語<sup>29)</sup>(방점 필자)

오늘날 소위 時調(엄밀히는 短型時調)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短歌’

26) “上曰誦聲清雅必善歌曲其爲豫歌之 先生에而對曰 此日聖恩遇出今古 不可以古之歌奏又不可爲今之曲 臣願自製以奏 遂爲之歌曰” 「自菴集」

“臣希春又蒙賜酒于 慶會南門三蓋 臣伏受盡盞 大醉扶人而出城門 馬上 感上恩 口占作家曰” 「眉巖日記草」

27)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p. 272.

28) 조규익, 前揭書, 國文요약.

29) 「成宗實錄」卷一百二十二 十一年 庚子十月.

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기에 上記의 ‘短歌’도 그런 예로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短歌’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 명칭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立證資料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權寧徹님은 「不憂軒歌曲研究」<sup>30)</sup>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간단히 소개하겠다. 우선 上記 예문에서 방점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묶었다.

- |        |            |        |
|--------|------------|--------|
| ㉠ 長歌六章 | ㉡ 俚歌二章：(乙) | ㉢ 長歌一章 |
| ㉣ 短歌二章 | }          | (甲)    |
|        |            | ㉤ 短歌二章 |
|        |            | }      |
|        |            | (丙)    |

그리고는 몇 가지 推論을 시도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 “一章”은 “六章”의 誤記.

둘째, 甲=乙=丙, 즉 ㉠=㉡, ㉣=㉤, ㉢=㉠+㉣

셋째, ㉠=不憂軒曲, ㉣=不憂軒歌

네째, 賞春曲은 丁克仁의 作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추론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우선, 1472年頃의 作인 “長歌六章, 短歌二章”을 1480年에 獻上하는 “長歌一章, 短歌二章”과 畵이 일치시키기 위하여 正史의 기록에서의 ‘一’을 ‘六’의 誤記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임금에게 獻上을 생각할 정도면 많은 작품을 지어본 솜씨이라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記錄되지 못하고 逸失된 작품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記錄上の 數字를 畵이 일치시키고, 나아가 公의 死後 305년(1786, 正祖10)만에 成冊된 「不憂軒集」에서 〈不憂軒曲〉과 〈不憂軒歌〉가 그 作品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兩作品이 그렇게 고스란히 남은 터에, 〈賞春曲〉만이 後世의 贋作으로 첨부되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短歌形의 노래말이 朝鮮初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보면 이 “短歌”가 어떤 樣式의 노래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필자는 短歌란 용어가 나오는 기록을 모두 찾아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sup>31)</sup>, 대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短型時調

30) 權寧徹, 「不憂軒歌曲研究」(『國文學研究』第2輯, 暎星女大 國文科, 1962), pp. 39~91.

31) 拙稿, 「短歌·長歌·時調 小攷」(『語文學』第47輯, 1986, pp. 25~44).

라 하고 있는 양식의 노래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지면 관계로 그런 경우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 ① 渙父短歌五章(龔巖漁父歌·板本)
- ② 約作短歌五闕(龔巖漁父歌·板本)
- ③ 又得短歌之爲漁父作者十闕(龔巖漁父歌·板本)
- ④ 書于此三短歌(「歸田錄」)
- ⑤ 短歌(「白菴集」)
- ⑥ 俛仰亭短歌(「俛仰集」)
- ⑦ 短歌五闕 爲昇平時所作(「潤松集」)
- ⑧ 俚林士遂寃死作短歌(「河西先生續集」)
- ⑨ 短歌三闕(「介庵集」)
- ⑩ 在北路偶作一短歌(「松江歌辭」)  
手書長詩短歌(「松江歌辭」)  
短歌(「松江歌辭」)  
右短歌十六載見警民篇(「松江歌辭」)  
且其短歌 多有見逸者(「松江歌辭」)
- ⑪ 短歌(「松潭遺事」)
- ⑫ 又短歌(〈牧童問答歌〉의 附錄)
- ⑬ 短歌(「石灘先生文集」)
- ⑭ 燕行時短歌(「野村集」)
- ⑮ 短歌 작은 노래라(「弄丸齋歌詞集」)
- ⑯ 彭年嘗作短歌曰(「魯陵志」)
- ⑰ 自製長短歌一百四十九章(「海東歌謠」)
- ⑱ 並與長歌三曲及短歌四章(「青丘永言」)
- ⑲ 得見士淳之所製短歌三章(「青邱歌謠」)
- ⑳ 吾請歌之 仍作短歌(「青丘永言」)(이상 방점 필자)

이상 거론한 예들은 모두 오늘날 短型時調로 지칭하고 있는 시형의 노래말을 短歌로 지칭한 경우이다.<sup>32)</sup> 이 중 가장 믿을만한 記錄이면서 最古

\_\_\_\_\_, 「時調」란 名稱에 대한 再考察(『울산어문논집』제4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32) 필자는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 '短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許筠이 「國朝詩刪」(卷3)에서 權韓의 七言絶句 〈過松江墓有感〉의 結句

의 것으로는 嘉靖己酉(1549)에 썼다고 하는 磬巖과 退溪의 漁父歌跋인데, 1472년 혹은 1480년에 짓거나 獻上하였다고 하는 長歌와 短歌와는 時間的으로 약 7·80년의 차이가 있다. 그 사이에 나온 작품의 예는 뒤에 언급하겠으나 위에서 例示한 것처럼 수백년간 短型時調形을 가진 노래를 短歌로 지칭했던 것으로 봐서 「成宗實錄」이나 「不憂軒集」行狀에 나오는 '短歌'란 명칭은 短型時調形을 가진 노래말로 봐야 할 것이다.

英祖 18년(1742)에 徐宗汲(1688~1762)이 序文을 쓰고, 乙巳年(1905)에 郭鍾錫이 跋文을 쓰고, 庚午年(1930)에 寒碧堂의 10代孫 郭洪弼이 發刊했다고 하는<sup>33)</sup> 「寒碧堂文集」에서는 七言漢詩를 '短歌'로 표기하고 있어 例外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實錄에는 “長歌一章 短歌二章 皆雜以俚語”라 하고 있으니 이런 예외의 우려는 없다. 그리고 20C初에 선행했던 雜歌 중의 短歌 역시 丁克仁의 短歌와는 우선 시간적으로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丁克仁이 지었다고 하는 短歌는 비록 不傳하나 短型時調形을 취한 노래로 보여진다. 成宗朝 當時에는 短型時調形이 存在했으며, 그것은 短歌로 지칭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sup>34)</sup>

## 6. 退溪·藏六堂·磬巖의 短歌

### (1) 退溪의 〈陶山十二曲〉

退溪 李滉(1501~1570)의 〈陶山十二曲〉(이하 〈陶山曲〉으로 표기)은 郭跋文(1565)과 함께 自作自筆의 板刻으로, 年代까지 明記되어 傳承되고 있다고 한다.<sup>35)</sup> 실기 선빙상 있는 最古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sup>36)</sup>

또, 〈陶山曲〉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短歌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退溪 當時, 短歌는 분명 존재했

“昔年歌曲即今朝”의 批에 “鄭有短歌 道死後墳上無一盃”라 하여 〈將進酒辭〉를 短歌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松江歌辭」에서 '短歌'로 표기한 訓民歌 작품들과 〈將進酒辭〉가 완전히 구별되고 있는 것 등으로 봐서 그것은 短歌가 잘못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33)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研究」, p. 98.

34) 成宗代를 成立期로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 申弼徽님은 그 근거를 時代的 背景에서 「時調文學의 發 研究」, 慶南大學 論文集 제1집, 1972), 成吳慶님은 律格에서 「16世紀 國語詩歌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찾고 있다.

35)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研究」, p. 80.

36) 成吳慶님은 成宗의 “北殿眞句”라 불리는 것 “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로 언급한 바 있다. 「고려사가 『後殿眞句(北殿)』의 복원을 위한 모색」, 『국어학연구』 90호, 1983 참조.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이 〈陶山曲〉은 단가 형태의 최초 발생기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을까?

먼저 이 〈陶山曲〉을 최초의 완성된 短歌 作品으로 꼽은 논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김수업님은 신빙성 있는 문헌에서 고른 이 〈陶山曲〉과 龔巖의 〈漁父短歌〉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단가 발생의 始發을 이 〈陶山曲〉으로 잡고 있으나<sup>37)</sup> 그 論理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 보자.

첫째, 〈漁父短歌〉의 몇몇 대목이 불안한 가락이어서 〈陶山曲〉보다 앞선 단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가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뒤의 내용으로 봐서 字數와 다소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정한 박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音節數가 신축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삼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

둘째, 〈漁父短歌〉5首 중 첫째 首가 논리적 전개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李王壽님이 “時調의 構造類型”을 몇 가지로 파악한 적<sup>38)</sup>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文學作品으로 보는 그 대상을 굳이 ‘論理的 展開’를 따져 그 작품의 형식상의 완전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세째, 〈어부단가〉5수 중 흠잡을 데 없는 것은 2수 정도여서 이 작품이 지어진 16세기 중엽에는 아직 시조라는 문학 갈래가 확립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고, 〈도산곡〉은 “言志의 마지막 노래의 세째 줄이 ‘하물며 魚躍 驚飛雲影天光이아 어너그지 이슬고’로 되어 둘째 음보가 너무 길어져 있는데 그것이 흠이기는 하나” “완벽한 시조의 모습”이라는 견해는 너무도恣意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쪽의 흠은 불완전함으로 보이고, 어느 쪽의 흠은 “긴박한 파란을 얻고자 하는 특징”으로 보이는가 하는 의문 외에도, 비록 한 작품일지라도 定型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런 形式의 發生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네째, “略倣李歌”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김수업님은 “그분은 자신이 도산곡 시조를 지어 보기 전에는 그 노래와 같은 시조 문학을 알지 못했었고 자신이 맨 처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본다는 것이다. 다만 李

37) 김수업, 前掲書, pp. 3~24.

38) 李王壽, 「이민지문 通해 본 古時調의 文學性」(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11).

鼈의 노래가 있었으나 아마도 형태만 시조와 비슷했을 뿐 내용이 점잖지 못하여서 본질적으로 사대부의 노래인 시조는 아니었던 듯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필자가 방점친 부분은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李鼈六歌>(이하 <李歌>로 표기)를 ‘시조라는 범주’(단가)에 넣지 못하는 것이 그 형태 때문인가, 내용 때문인가? 형태가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인가? 점잖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사실 <李歌>가 정말 점잖지 못한지, 또 단가의 본질이 점잖음에만 있는지도 문제이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古文獻의 상황으로 봐서 <陶山曲> 말미에 퇴계 지신이 쓴 跋文은 短歌 發生期 추정 문제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관계되는 부분을 살펴 보자.

……尙惟近世 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위의 예문을 보면 <陶山曲>이 <李歌>의 形式面을 모방했으리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李歌>에서 “玩世不恭之意”가 있고, “溫柔敦厚之實”이 적음을 不滿스럽게 생각했던 退溪가 그 노래를 略倣하였다면 그 대칭은 분명 내용이 아니라 형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혀 異質의 것으로 보이는 형태로 바꾸었다면 “略倣”하여 지었다고 하기도 어렵겠거니와 그렇다면 唱曲의 변화도 수반될 터인데 그런 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 본다는 내용을 行間에서 찾기는 어렵다. 다만 그 형식과 함께 퇴계가 그대로 따랐던 六歌와 李鼈의 號인 藏六堂에서의 ‘六’의 의미기 歌意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논한 柳鐸一님의 견해<sup>39)</sup>는 주목될 만한데 사실 “彼善於此”“亦惜乎”“少溫柔敦厚之實”(방점 필자) 등의 文句에서 그 내용을 다소 긍정하는 퇴계의 태도를 읽을 수가 있다.

近年, 작품이 전승되지 않아 논란의 的으로만 남을 것 같던 <李歌>가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그 漢譯歌 4수가 발견되어 이런 推論이 긍정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살펴 보기로 하자.

## (2) 藏六堂의 <六歌>

39) 柳鐸一, 「李鼈六歌攷」(釜山大學校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4輯, 1974), p. 107.

잘 알려져 있지 않은 藏六堂 李鼈의 人物에 대해 柳鐸一님은 일찌기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sup>40)</sup> 그후 崔載南님은 장육당의 從孫인 瀼西 李光胤(1564~1637)의 詩文集인 「瀼西集」에서 〈李歌〉 6수 중 漢詩로 번역된 것 4수를 寓目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漢詩를 다시 한글로 복원해 보았는데<sup>41)</sup>, 여기서는 2수만을 兩形態로 인용해 본다.

|       |            |
|-------|------------|
| 我已忘白鷗 | 내 이미 백구 잊고 |
| 白鷗亦忘我 | 백구도 나를 잊네  |
| 二者皆相忘 | 둘이 서로 잊었으니 |
| 不知誰某也 | 누군지 모르리라   |
| 何時遇海翁 | 언제나 海翁을 만나 |
| 分辨斯二者 | 이 둘을 가려낼꼬  |
| 吾耳若喧亂 | 내 귀가 시끄러움  |
| 爾瓢當棄擲 | 네 바가지 버리려문 |
| 爾耳所洗泉 | 네 귀를 씻은 샘에 |
| 不宜飲吾犢 | 내 소는 못 먹이리 |
| 功名作弊屨 | 공명은 해진 신이니 |
| 脫出遊自適 | 벗어나서 즐겨보세  |

“世所盛傳”했던 〈李歌〉이기에 季弟의 孫子인 瀼西의 文集에 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內容上 퇴계가 不滿했던 점, 또 許穆이 「藏六堂六歌識」에서 지적한 것처럼 “許父 集由의 기풍이 있다”<sup>42)</sup>는 점 등을 위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작품은 퇴계가 언급했던 〈李歌〉임을 믿어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위의 복원된 모습이 原作品에 어느 정도 近接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形態面에서의 大差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의 형태를 지닌 〈李歌〉도 〈陶山曲〉과 같이 連形の 短歌라는 것이다.

〈李歌〉를 연형으로 된 短歌로 인정한다면 그 창작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별다른 論據를 제시할 수 없는 여기서는 일

40) 柳鐸一, 「李鼈六歌 小考」(釜大新聞, 1963. 11. 1字).

41) 崔載南, 「藏六堂六歌와 六歌系 時調 - 藏六堂六歌의 복원 -」(釜山大 語文教育論集 第7輯).

42) “有藏六堂六歌傳於世……(중략)……有箕穎之風”(藏六堂六歌識, 「記言別集」) 崔載南, 前掲論文, pp. 125~126 참조.

단 “李龜六歌의 創作時期는 燕山君 6年(1500)以後 즉 平山 玉溪 生活에서 創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43)</sup>는 유탁일남의 推論을 수용해야겠다. 따라서 1500년 경의 短歌形態의 작품 존재는 다른 反論의 여지가 없는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1470~80년대 丁克仁이 지었다고 하는 短歌에 대한 史錄과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 〈李歌〉와 丁克仁의 短歌는 15세기 후반기에는 오늘날 短型時調로 지칭되는 詩形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더구나 다소 後에 기록된 것<sup>44)</sup>이기는 하나 金絳(1488~1534)가 中宗에게 지어바쳤다고 하는 “나온다~” 등의 작품과 周世鵬의 作品, 俞好仁의 辭職歸省時(成宗25년:1495)에 成宗이 지었다고 하는 “이시렴~” 등 상당한 신빙성을 지닌 작품들이 〈李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들임을 볼 때 當時의 短歌 存在는 거의 확실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李歌〉에서 주목되는 것은 〈李歌〉가 連形이라는 점과 그 내용 중 白鷗·海翁·漁磯·一竿·淸斯濯我纓·濁斯濯我足 등의 詩語나 분위기가 漁父歌系의 노래와 脈相通하고 있다는 점이다. 短歌의 최초 발생기와 이 〈李歌〉의 시간적 거리는 얼마쯤일까? 漁父歌系 노래와의 관계는? 아직은 단언할 수 없으나 많은 문제가 漁父歌系의 노래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龔巖의 〈漁父短歌〉를 고찰해 보자.

### (3) 龔巖의 〈漁父短歌〉

농암의 〈漁父短歌〉5章은 退溪의 〈陶山曲〉의 板刻과 더불어 그 原貌를 더듬기에 가장 信憑性이 있고, 「歸田錄」3章은 농암의 第6子 梅巖의 自筆本이라 또한 原作을 充分히 轉寫하였으리라고 한다.<sup>45)</sup> 앞서 논의한 〈李歌〉의 존재를 봐서도 이 〈漁父短歌〉5章의 형태가 定型으로서 짜임새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작품을 직접 ‘短歌’로 지칭하고 있는<sup>46)</sup> 「歸田錄」의 〈效頌歌〉·〈龔巖歌〉(1542)와 〈生日歌〉(1551) 3수 역시 그 形態面에 큰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농암이 改撰의 대본으로 삼았던 傳來의 〈漁父短歌〉 10결의 정체가 어떠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쯤 처음 출현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

43) 柳鐸一, 前掲論文, p. 105.

44) 「自菴集」(1659年刊) 소재.

45)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研究』, p. 74.

46) “盡于此三短歌”(「歸田錄」).

이다. 우선 농암 자신과 퇴계가 쓴 漁父歌跋文을 보자.

㉠ 漁父歌兩篇 不知爲何人所作 余自退老田間……(중략)……兒孫輩 曉得此歌而來示 余觀其詞語閑適 意味深遠 吟詠之餘 使人有脫略功名 飄飄遐舉塵外之意 得此之後 盡棄其前所玩悅歌詞 而專意于此 手自謄冊 花朝月夕 把酒呼朋 使詠於汾江小艇之上 興味尤真 疊疊忘倦 第以語多不倫 或重疊 必其傳寫之訛 此非聖賢經據之文 妄加撰改 一篇十二章 去三爲九 作長歌而詠焉 一篇十章 約作短歌五闕 爲樂而唱之 合成一部新曲…… (龔巖 漁父歌跋)

㉡ 世所傳漁父詞 集古人漁父之詠 間綴以俗語 而爲之長言者凡十二章 而作者名姓無聞焉……(중략)……頃歲 有密陽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竄集爲一部書 刊行于世 而此詞與霜花店諸曲 混載其中 然人之聽於彼 則手舞足蹈 於此則倦而思睡者 何哉 非其人 固不知其音 又焉知其樂乎……(중략)……佐郎黃君仲舉 於先生親且厚 嘗於朴浚書中 取此詞 又得短歌之爲漁父作者十闕 拜以爲獻 先生得以玩之 喜愜其素尚 而猶病其未免於冗長也 於是 刪改補撰 約十二爲九 約十爲五…… (退溪 漁父歌跋)

농암이 一篇十章의 것을 約作하여 短歌五闕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그 十章이 농암의 短歌와 같은 형태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퇴계가 “又得短歌之爲漁父作者十闕”(방점필자)이라 했으니 改撰 前도 역시 短歌였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漁父短歌 10결은 농암의 단가보다 선행하는 同一形態의 노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이 漁父短歌가 어느 때에 처음 출현했는가 하는 점이다.

퇴계의 발문을 보면 농암이 去三爲九한 대본인 〈어부장가〉 12장은 朴浚이 東方의 樂을 竄集한 冊에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又得短歌”라 한 문맥으로 봐서 단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얻었다고 짐작된다. 朴浚의 書에 漁父短歌 10결이 없었다면 黃仲舉는 어디에서 이 작품을 入手했을까? 위 跋文으로는 그 어부단가의 발생 시기나 직자 등에 관하여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단지 몇 가지 推論만을 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尹榮玉님은 〈漁父歌〉에 관한 기록을 일일이 파악, 논의한 바 있다.<sup>47)</sup> 거기에서 본고에 필요한 부분만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7) 尹榮玉 「『漁父詞』研究」(『民族文化論叢』第2-3輯, 嶺大 民族文化 研究所, 1982), pp. 35 ~ 72.

- (1) 陽斷一聲漁父歌(悼龜峯金政丞永暉, 「益齋集」卷四)
- (2) 往往興酣漁父詞(漁村記, 「陽村集」卷四)
- (3) 半酣高歌漁父詞(題孔伯共漁父詞卷中, 「三峯集」)
- (4) 每酒酌 歌漁父詞 非宮商 非律呂 而高下相應 節奏諧協 蓋出於自然者也  
道傳聽伯共漁父詞 讀可遠漁村記(題漁村記後, 「陽村集」)
- (5) 命妓唱漁父詞 賜上妓樂工楮貨百餘張(「朝鮮王朝實錄」太宗十二年 四月  
辛未條)
- (6) 金子恂漁父歌甚善(「朝鮮王朝實錄」太宗十二年 六月 戊辰條) (이상 방점  
필자)

이상은 麗末·鮮初에 불려졌던 漁父歌에 대한 言及이다. 이 어부가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芝峯類說」(1614)에 있는 “長歌則 感君恩 翰林別曲 漁父詞 最久”란 기록이나 농암의 漁父歌에 퇴계가 쓴 跋文에서 “此詞 與霜花店諸曲 混載其中 然人之聽之於彼 則手舞足蹈 於此則倦而思睡者 何哉”라 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에서 예시한 文獻들에 나오는 어부가란 주로 漢文句로 엮어진 漁父長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黃仲舉에 의해서 농암의 손에 전해졌던 漁父短歌 10결의 이야기는 퇴계의 跋文 이전의 기록으로는 아직까지 찾아볼 길이 없다. 長歌로 짐작되는 漁父歌에 대한 기록은 麗朝에서부터 있는데 漁父短歌에 대한 기록이 並存하지 않는 것을 보면 漁父長歌와 漁父短歌가 일찍부터 共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漢詩文의 漁父歌나 거기에 토만 단 정도의 漁父歌가 불려지던 麗末·鮮初보다 <漁父短歌>의 출현시기는 뒤진다는 것이다.

그럼 이 어부단가의 발생시기는 단가의 발생시기와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날까? 아직은 단언할 수 없으나 <李歌>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李歌>가 短歌形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 <李歌>의 곳곳에는 어부가와 상통되는 詩語가 보인다는 점, 以前의 어부가 작자들과 藏六堂의 삶의 태도에 많은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李歌>와 이전의 어부단이 10결은 특별한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 별다른 論據를 가질 수 없는 지금은 단지 <漁父短歌>가 <李歌>보다 先行하여 <李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지 않나는 추측을 해 볼 따름이다.

### III. 結 論

이상 논의한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코자 한다.

歌集에 실려 있는 麗朝의 作者名들은 歌集의 作者表記 태도로 봐서 신빙하기 어려운데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증 없이 麗末의 人物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그 以前의 人名은 불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말했다. 그리고 麗朝人의 작품이란 것이 당시의 時代相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에 긍정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 있음과, 시적 화자와 작자는 분리되어야 함을 논했다.

麗末의 작자를 신뢰코자 하는 學界의 기운은 여러 文獻에서 발견되는 〈丹心歌〉와 〈何如歌〉에 대한 언급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두 작품의 存在 가능성을 再論해 보았다. 많은 文獻에서 李芳遠과 圃隱의 酬唱說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문헌끼리도 差錯을 보이고 있으며, 강전섭님의 주장처럼 壬亂前의 기록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當時의 狀況을 기록한 正史인 「高麗史」나 「高麗史節要」뿐만 아니라 「龍飛御天歌」 등의 기록에서도 두 사람이 酒宴 속에서 和唱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보완되기 이전에 現傳의 문헌으로 두 사람의 和唱說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歌集에 “自麗季至國朝……”라는 文句가 있는 것을 麗朝發生說의 근거로 삼는 논의와 그와 반대 입장의 논의가 있었기에 문제의 대상으로 했다. 비록 序文에서는 “自麗季至國朝……”라는 文句를 쓰고 있으나 실지 내용은 전혀 그 序文에 구애받지 않는 古歌集의 편집 태도에서 그 서문만을 인용하여 麗朝에서 短歌形式이 출현했다고 논하기는 어려움을 말했다.

古歌集의 作者表記를 보면 鮮初의 雅頌을 지은 이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단가의 작자와 아송의 작자가 同一의 部類라면 兩者가 영향을 授受했을 법하다. 그러나 그런 영향 관계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王族이거나 顯達한 官僚였던 그들이 短歌를 향유했다는 언급은 당시의 신빙성 있는 史錄 어디에도 없다. 短歌의 格이 낮거나 敎化의 機能이 떨어지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기에 만약 존재했었다면 正史에 팔막한 언급이라도 있을 법한데, 丁克仁의 “短歌”를 기록한 「成宗實錄」 이전의 어느 문헌에도 없다. 따라서 그보다 3·4백년 뒤에 나온 歌集에 表記된 麗末·鮮初의 王族·官僚들의 이름을 무비관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丁克仁이 지었다고 하는 短歌를 〈不憂軒歌〉로 보려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그 短歌는 오늘날 短型時調로 지칭하고 있는 詩形을 가진 노래일 것임을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조선조 수백년 동안 ‘短歌’로 지칭되었던 대상 작품을 살펴본 결과 대개가 오늘날 우리가 短型時調로 지칭하고 있는 형태의 노랫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구나 成宗이 俞好仁을 위해 불렀다고 하는 작품, 金絳가 中宗을 위해 불렀다고 하는 작품, 또 周世鵬의 작품 등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때에 나온 신빙성이 있는 자료임으로 봐서 1470~80년 경에는 短型時調形이 短歌로 지칭되면서 분명 존재했었을 것임을 주장했다.

〈陶山曲〉은 16세기 당시 단가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이다. 그 跋文에 언급된 〈李歌〉는 발문의 文脈으로 봐서 〈陶山曲〉과 同一樣式의 단가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논했다. 그 〈李歌〉의 創作時期로는 1500년경으로 보는 유탁일념의 견해를 취했다. 작품은 전하지 않으나 實錄에 언급되어 있는 丁克仁의 短歌와 신빙성 있는 자료인 退溪의 漁父歌跋에 언급된 〈李歌〉의 存在는 15세 후반기에는 短歌가 분명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농암이 改撰한 〈漁父短歌〉5장의 대본인 〈漁父短歌〉10결은 분명 短歌形式이었을 것임을 농암과 퇴계의 跋文으로 논의했다. 그렇다면 농암의 短歌에 先行하는 短歌가 분명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漁父短歌〉10결의 出現時期는 확언할 수는 없었으나, 藏六堂의 六歌가 역시 短歌形이면서 그 詩語도 어부가와 相通하는 것이 많고 작자의 태도 역시 어부가의 작자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李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漢詩文의 漁父歌가 많았던 麗末·鮮初에 漁父短歌가 있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았다.

현재 전하고 있는 資料를 봐서는 短歌의 麗朝發生을 인정하기가 극히 어렵다. 분명히 存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 후반기(成宗代)이다. 그 成立期는 訓民正音 제정 이후의 15세기 중반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 參考文獻은 脚註로 대신함.